



기억과전망

Memory & Vision

2016년 여름호 (통권 34호)

책 머리에

오월을 지나 유월로 접어드는 이즈음이면 해마다 80년 광주와 87년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어진다. 『기억과 전망』이라는 본지의 제호는 이러한 기억들을 공공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또 미래를 향한 전망과 연결하는 공동체 시각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어느새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른 지금, 민주화 운동이 한국사회에 불어넣은 동력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오히려 협소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둘러싼 논란, 지지부진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앞에서 다시금 한국사회의 공공성, 공동체적 책임을 묻게 된다.

이번 호에 실린 일반 논문들은 사회운동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성찰,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모델과 쟁점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김상숙의 논문은 해방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배경으로 지역 수준의 사회운동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대구 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을 문헌 자

료뿐 아니라 다양한 구술 자료를 통해 조명하며,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사회에서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둔 연구이다. 김명희의 논문은 광주항쟁을 다룬 웹툰 〈26년〉을 통해 공공 기억과 역사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측면을 다루며, 오늘의 시점에서 성찰적 공감의 여전히 중요함을 환기시킨다. 또한 두 편의 경제학 논문이 실렸는데 각기 다른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원근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형 발전 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벌 정책과 경제 민주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하고 있다. 한편 이상호는 성장 일반론의 경제모델에서 탈피하려는 생태경제학의 이론적 전망을 주요 이론가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검토한다. 지역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고전적 주제를 지역 자치의 현실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김영수의 논문도 주목된다. 이론적 모색뿐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민 자치의 풍부한 사례와 고민들을 녹여내고 있는 글이다.

특별히 이번 호 특집은 한국 민주화운동을 새롭게 조명하는 도전적인 연구들, 신진 연구자들의 논문 세 편을 묶었다. 이러한 특집 구성은 필자들뿐 아니라 편집위원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기득권 대 운동권이라는 협소한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나름의 참신한 시각으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연구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먼저 홍성태의 논문은 민주화 운동을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 권력에 항거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저항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발생한 크고 작은 저항들을 꼼꼼한 자료 검토 작업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념 노선이나 이데올로기를 부각시

키기보다는, 저항이 표출되는 역사적 주기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형성을 다루는 점이 눈길을 끈다. 천유철의 논문은 1980년 광주현장의 소리의 풍경, 즉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독특한 방법론으로 재해석한다. 현장에 울려 퍼진 해산 방송과 총성, 미디어의 침묵,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가두방송과 시민공동체의 형성 등 소리를 통해 광주의 공간이 그려진다. 저자는 “광주민중항쟁의 현장에서 소리는 현실의 감각을 가로질러 각 주체의 질서를 확립하고 상대방을 회유시키며 문화적 긴장을 증폭”하였다고 분석한다. 한편 임미리의 연구는 1975년 이후 40여 년간 일어난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대학생 자살의 흐름은 5.18 항쟁을 기점으로 점화되어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분출 과정에서 급증하였으며, 이후 1997년 전후 한총련이 쇠퇴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고 분석한다.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화 운동 연구들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체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신진들은 보다 객관적인 방법론에 의지하거나 이전에 주변화되었던 문제들을 복원하는 식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이들의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호의 회고록은 1970년대 이후 재독 한인들의 민주화 운동을 상세히 기록한 귀중한 글이다. 지난호의 전편에 이어 이번호에는 그 후편이 실렸다. 유신 독재에 맞서 해외에서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재독 유학생, 광부, 그리고 한인교회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들이 당시의 여러 문건들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일국적 경계에 국한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또한 한국

의 민주화 경험을 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초국적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되돌아볼 필요성을 환기하는 의미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평은 세월호 사건이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각 학문분과별로 성찰하는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을 다루었다. 이 책의 화두 역시 서두에 언급한 문제의식, 지금 이곳에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국가와 공공의 책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연구자들의 자기 성찰에 다름 아니라 생각한다. ~~다~~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황정미 씀